The doctrines of grace motivate God's people
to carry out their missionary calling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는 은혜의 교리들

Dr. Wes Bredenhof(Free Reformed Church, Launceston, Tasmania)
번역 : 이윤호(선교지평 발행인)

옳든 그르든 사람들은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어붙은 택자(擇者)'라는 별명을 붙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우리를 빈정대며 붙인 별명이다. 이 호칭은 우리가 불같이 뜨겁지 않고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선택이라는 교리는 곧 전도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닌 말이 바로 얼어붙은 택자(擇者)이다.

이 별명이 만들어 진 것은 우리시대 이지만 이런 생각이 존재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Rightly or wrongly, some have given Reformed believers the nickname "the frozen chosen." The nickname plays off our belief in God's election or choosing. And then it adds the fact that instead of being on fire, we're frozen. And that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reaching out to those who don't know Christ. Election is then associated with a lack of excitement about outreach. "The frozen chosen."

The nickname is a contemporary one, but the idea is very old. For hundreds of years,

수 백 년 전에 이미 반(反)개혁주의자들은 선택과 같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떼어 놓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선교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교리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들을 굳게 붙잡은 성도들이었다.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존 페이튼(John Paton), 존 모트(John Mott), 헨리 마틴(Henry Martyn),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 그리고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 같은 이들이다. 결국 은혜의 교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공식은 근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사실은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전도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자신들도 의식했듯이 은혜의 교리들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자라났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은혜의 교리들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교리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르트 신조에 있는 가르침들을 말한다. 이 가르침들은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둔다. 이 가르침은 흔히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non-Reformed Christians have claimed that teachings like election lead God's people away from excitement about missions and evangelism.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many of the men whom God used in most powerful ways through the history of missions - many of them were believers in what we call the doctrines of grace. Men such as William Carey, John Paton, John Mott, Henry Martyn, Jonathan Edwards, George Whitefield and Charles Spurgeon. At the end of the day, the evidence for the doctrines of grace leading God's people to be indifferent towards missions is very slim. In fact, it's quite the opposite. With most of the men I just mentioned, their evangelistic zeal self-consciously grew out of their believing the doctrines of grace. Zeal for missions and a love for and belief in the doctrines of grace went together for them.

Now when we talk about the doctrines of grace, we should be clear about what we mean. I'm speaking about the teachings that we find in the Canons of Dort. These teachings place God's grace at the center

있는데 각각에 대한 영어 첫 알파벳을 모아 튤립(TULIP)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적부패(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그리고 성도의 견인(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이 그것이다.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둘째 교리는 제한 속죄를 다룬다. 이 은혜의 교리는 그리스도가 오직 택자(擇者)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택자(擇者)들의 죄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구원의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는 구원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셨는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of our salvation. They've often been summarized with the acronym TULIP: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and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The first chapter of the Canons of Dort deals with unconditional election: the basic teaching there is that God chooses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purely out of his grace.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limited atonement. This doctrine of grace teaches us that Christ died only for the elect. His death was enough to pay for the sins of every human being, but it only works to pay for the sins of those who believe in Christ, the elect. As a result, Christ doesn't make salvation a possibility, but a reality. He acquired salvation for us and then he also applies it to us. All out of grace - this is not something we deserve.

둘째 교리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복음 전파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바로 개혁주의 교회가 항명파 혹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을 상대로 벌였던 전투이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라는 개

Articles 5 through 7 give attention to the preaching of the gospel. It comes again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battle with the Arminians or Remonstrants. The Arminians knew the Reformed teaching about lim-

혁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다. 이 교리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이랬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속죄가 제한적이라면 약속에 대해 전파하는 것도 제한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바로 이런 생각에 대한 반응이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제한 속죄를 포함하는 은혜의 교리들은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을 방해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선교사명에 대해 열정을 일으키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제 세 가지 작은 주제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전파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
2)거절되는 하나님의 은혜
3)영접되는 하나님의 은혜

1. 전파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교회의 가르침 중에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서로 모순된다

ited atonement. And they thought about it and said, "Well, if this is true, then there's no point in preaching the gospel to everybody! If atonement is limited, then the preaching of the promise of the gospel has to be limited too!" Seems to make sense at first glance, doesn't it? The Canons of Dort respond to this way of thinking in these three articles we're looking at today. And rather than stymie evangelistic zeal, the doctrines of grace, including limited atonement, actually motivate God's people to get excited and involved with their missionary calling.

And so our theme is this:

The doctrines of grace motivate God's people to carry out their missionary calling.

We'll see God's grace:

1.Announced and proclaimed
2.Rejected
3.Accepted

1. God's grace announced and proclaimed.

There are two sets of facts that the Reformed churches taught from the Scriptures that the

고 생각하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 그리스도가 오직 택자(擇者)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에게 이 두 명제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에 이 두 가지 명제가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개혁주의 교회는 이 둘 사이에 전혀 모순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Arminians found to be contradictory. On the one hand, there is the teaching that Christ died only for the elect.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teaching that the gospel is to be proclaimed universally. In the Arminian way of thinking, those two things just could not go together. And that's why these two sets of facts are here in chapter 2 of the Canons. The Reformed churches wanted to make it clear that there is no contradiction.

신조는 우선 약속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 제5항은 요한복음 3장16절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역시 문제 삼지 않는 익숙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It starts with the promise. The Scriptures are clear about the promise of the gospel. At the beginning of Article 5, there's a paraphrase of John 3:16. The promise is that whoever believes in Christ crucified will not perish, but will have the life that lasts forever. To this point, the Arminians wouldn't have had any problem. Most Christians today wouldn't have a problem with this either - it's plain Scriptural teaching.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특히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문구에서이다. 사실 사람들이 이 문구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

But the next sentence is where the problems would start. Especially with the phrase “announced and proclaimed univers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to all peoples and to all men…” It's not that people would

독교인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르트 신조의 전체적인 맥락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리스도가 오직 택자(擇者)를 위해 죽으셨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단 말인가!

disagree with the statement as such. Nearly all Christians would agree that the gospel should be told to every one. The problem is that some Christians would read this and say that this doesn't make sense in this context of the Canons of Dort. If Christ only died for the elect, why should we bother telling the gospel to everybody?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28:18-20에서 보듯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신분이라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결코 짐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꺼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일이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바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복음은,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자(擇者)들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는 수단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방법이다.

There are two reasons. First of all, Christ commands us to. In passages like Matthew 28:18-20, the so-called Great Commission, the church is sent out to preach and teach the good news. And our identity in Christ means that Christ's command isn't burdensome to us - it's something we do naturally, something we want to do by the power of his Spirit working in us. Second, the telling of the gospel is the means which God uses to gather those for whom Christ died. The gospel and its preaching is the means by which God creates faith in the elect and calls them to Christ. It's the way in which God's decree of election is made to come to reality.

그러므로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So, the gospel is to be proclaimed. And

것은 보편적으로 널리 행해져야 한다. 신약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과 그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 하도록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에서도 발견된다. 시편 96편이 그 한 예이다. 여기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기이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선포하도록 북돋우고 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이란 그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에게 돌릴 만한 공적은 전혀 없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새 삶이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낼 뿐 우리에게 돌려 질만한 것은 없다. 시편 96편은 우리가 복음을 만방에게 나누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여러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우리 지역사회나 인접지역에는 복음의 약속을 들어보지 못한 사

this is to be done universally. Many Scripture passages in the New Testament support that. But there are also passages in the Old Testament which compel God's people to tell about him and his salvation to everyone. One example is what we read from Psalm 96. This Psalm encourages believers to declare God's glory among the nations, to tell of his marvellous deeds. For Old Testament believers, those were God's works of salvation, delivering his people repeatedly. This was entirely of grace - the people certainly never deserved it. For New Testament believers, we have what God has done for us in Christ - again showing us his grace, giving us what we never deserved: a new life that lasts forever. This Psalm calls us to share that good news with all nations. Romans 10 speaks similar language when Paul writes about the gospel being preached to both Jews and Gentiles.

Let's draw that out for a minute. We have various missionaries we support. But look around us. There are many in our communities and broader surroundings who've never heard the

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 가 보면 거기에도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거의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다른 선교사를 세워서 어떤 집단으로 보내야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단순하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나 좀 더 광범한 지역에서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둘째 교리 제5항에서는 전파하고 선포하라고 말한다. 우리가 관심있게 볼만한 것은 전파와 선포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확실히 단정지울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증거 하는 것(witnessing)과 설교하는 것(preaching) 사이에 존재하는 성경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증거 한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이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증

promise of the gospel. I'm positive that you could go into certain neighbourhoods and find hundreds of people who know nothing or very little about the Lord Jesus. What's the answer to this? Is it to call another missionary and send him to some ethnic group? No, the answer is simpler than that and it begins with you and me. It begins with us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 people whom God puts on our path. And sometimes we have to extend our paths a bit and get outside our comfort zone. Go places we might not otherwise go. Speak with people to whom we otherwise might not speak.

So God gives us opportunities to speak about Christ. How are we to do that? Article 5 of the Canons speaks of announcing and proclaiming. It's interesting that two different words are used there. I can't say for sure, but I think the Synod of Dort was working with the Scriptural distinction between witnessing and preaching. Witnessing is something that all believers are called to do and it takes place in all kinds of circumstances. Witnessing can be conversational, it can take place

거를 하는 것은 대화나 이(e) 메일을 비롯한 여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설교는 확실히 공식적이고 특별한 직분과 묶여 있는 개념이다. 설교는 특별하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전령(傳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교회도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고 선포할 것인가, 혹은 증거하고 설교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을 펴고 사도들이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방식을 살펴보자. 그들은 약속을 전파했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했다. 사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전도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적도 없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에 반영되어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약속과, 회개하고 믿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

over e-mail, or whatever other means. Preaching is more official, which is to say that it's tied to a special office. Preaching is generally done by a specially appointed ambassador or herald of Jesus Christ. The Bible teaches us about both and we're called, as a church, to do both.

And how we specifically do that announcing and proclaiming or witnessing and preaching is something that we also get some guidance on from the Scriptures. Look in the book of Acts and study the way the apostles did their missionary work. They preached the promise and they gave Christ's command to repent and believe. The apostles did not say to the unconverted, “God loves you an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The apostles never preached to unbelievers saying, “Jesus died for your sins.” They never said, “Jesus is knocking at the door of your heart. Won't you please let him come in?” They knew that the Lord Jesus only died for the sins of those who believe in him and this was reflected in the careful way in which they told the gospel. Preaching the promise and giving the command to repent and

려고 애쓸 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나눌 수 있다. 그 약속이란 바로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당신의 삶이 영원히 변화될 것이며, 그리고 당신은 창조자와 새롭고 건실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죄와 그들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마 11:28).

우리가 복음을 말했으면 그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전할 말을 알게 하시고 필요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는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찰 것이다.

believe. Our gospel efforts should fall along the same lines. When we get opportunities to speak about Christ, we share the promise: if you believe in Christ, your sins will be forgiven, your life will be changed forever. You'll have a new and healthy relationship with your Creator. This is the promise, now God says you have to repent, you need to have a change of mind about your sins, about yourself and about him. God says in the Bible that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Christ. Christ says, "Come un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 11:28)

And we're not done after we've told the gospel. We prayed for God to give us the opportunity. We prayed for God to give us the words and the strength we needed. Then we also have to pray for the conversion of those with whom we've talked. Pray vigorously. We pray and put it in God's hands. He is the only one who can graciously take a heart of stone and turn it into a heart of flesh. And when we pray for that and then see God do it, we're filled with praise for him! Pray and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여러 해가 걸린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keep on praying, even if it takes years before God gives the answer we seek…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은혜의 교리들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이시다. 우리가 제한 속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단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명과 관련해서, 은혜의 교리에 대한 가르침과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져보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가져보자.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좌지우지(左之右之)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전해야 할 놀랍고도 값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의 반응부터 살펴보자.

You see, the doctrines of grace are beautiful, because they focus all our attention on God. He is the one who gives new life. And when we think about limited atonement, we're reminded that he makes it a reality, not merely a possibility. And then when we consider our missionary calling, there's no contradiction between holding to these teachings and being zealous for gospel outreach. Why wouldn't we want to tell everyone we can about a gracious God? Why wouldn't we want to share the good news of what Christ has done? God did it all! It doesn't depend on us in the least. God's grace is truly amazing and worth sharing wherever and with whomever we can. And when we do that, there are two responses. Let's look at the first one now as we see:

2.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2. God's grace rejected.

둘째 교리 제6항에 이르면, 다시 한 번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야한다. 아르미니안주의

As we come to Article 6, again we have to read this in its historical context. The Arminians or

자, 혹은 항론파들의 말이 이렇다. 제한 속죄에 대한 가르침과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한다는 말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은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에 과오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들의 죄 값을 지불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닌가!

Remonstrants said, "Okay, given your teaching about limited atonement, and given that you preach the gospel to all (which doesn't make any sense, by the way), you still have to deal with the fact that many don't believe the promise. With your way of understanding it, the fault has to be laid at the sacrifice of Christ. Obviously, Christ's sacrifice wasn't enough to pay for their sins.

물론 둘째 교리 제4항에서 이미 역설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세상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가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회개의 요청을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But of course, the Canons have already insisted in Article 4 that Christ's death is of infinite value and worth. Christ's sacrifice was sufficient to pay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There is nothing lacking in the value of Christ's work of atonement. You cannot blame Christ's sacrifice for the fact that many do not respond positively to the call to faith and repentance.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이 거절당했을 때, 책임이 있는 대상은 단 하나이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 그 자신이다. 그리스도의 탓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물론 하나님에게 돌릴 수도 없다. 불신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로마서 10장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When God's gracious promise in Christ is rejected, there is only one address for the blame: the unbeliever himself. You can't pin it on Christ. You can't pin it on God. Unbelievers are responsible for their unbelief for 100%.
We find the same teaching in Romans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에 의해 요청을 받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잘못이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완고한 사람들이었다.

10. The preaching of God's grace in Christ goes out to both Jews and Gentiles. Preaching is the means by which God creates faith. But some, in this context particularly Jews, did not accept the message. They heard it, they were called by it externally, but many of them rejected it. And whose fault was that? Entirely their own. They were a disobedient and obstinate people.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것은 완전히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그들은 믿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얼마간 개입해서 그들이 약속된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다. 불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들이 있고자 하는 곳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즉, 누가 선택을 받았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우리가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

Likewise today, when people are called by the gospel and then reject it, it's completely their own responsibility. It's not as if they have a desire to believe, that somehow God or Christ stands in their way and keeps them from obtaining what is promised. They willingly remain in unbelief. That's where they want to be and they're entirely responsible for that. It's not like they remain in that position against their will.

As we consider this, we have to also reckon with our limited perspective on things. We can't determine whether somebody is elect or reprobate. We can't look into hearts. And that has to be kept

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이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믿지 않는 동료나 지인(知人)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면 그 경우를 한 번 생각해보자. 그들이 거절했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기된 사람들이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이상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 그렇지는 않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번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기도 한다. 적지 않은 경우가 이렇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으려 한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바울 자신이 말했듯이 그는 전에 하나님을 훼방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저 한 번씩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선택을 받은 자인지 유기된 자인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은혜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유기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과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 거절하는 상황을 만날 텐데, 제6항에서 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다. 잘못은 거절한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반복해서 거절할지 그렇지 않을지, 즉 그 사람이 유기되었는지 아닌지에

in mind when we tell the gospel. Perhaps we have an unbelieving co-worker or acquaintance and we've told them the gospel promises once. They rejected it. It was their own fault. Does that mean they're reprobate and we shouldn't bother with them anymore? Not at all! It's happened many times throughout history that people have heard the gospel message numerous times before finally submitting to Christ. If you want a Biblical example, think of the apostle Paul. He says that he was formerly a blasphemer, but he was shown grace. So, don't misunderstand the doctrines of grace as saying that we give people one chance and then after that one chance, we'll know whether they're elect or reprobate. That just isn't in the picture here. It's not up to u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someone is reprobate. Our calling, our mandate is to tell the good news of God's grace. When we encounter rejection, Article 6 summarizes the teaching of Scripture: that's man's fault. But that doesn't say anything about whether or not there will always be a rejection and whether or not

대해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총괄적인 핵심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 사람이 죄 안에 있을 때, 그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 그 결과는 그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실체이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자들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그의 공의가 드러날 때 찬양이 그에게로 돌려진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시편 96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시 96:12-13)." 여기서 공의로운 심판이 기쁨과 찬양의 노래와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담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이런저런 방편으로 그의 영광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복음을 전했

this particular person is reprobate.

The whole point here is to realize that salvation is entirely of God. Damnation belongs to man in his sin. When man is in his sin, he doesn't respond with repentance or faith. He remains under the just judgment of God. That result is not pretty or something pleasant to think about, but it is a reality. God uses the telling of the gospel to further implicate those in rebellion against him so as to display his justice. And when his justice is displayed, then praises are also given to him - we see that in Psalm 96 as well, verse 13: "….they will sing before the LORD, for he comes, he comes to judge the eart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and the peoples in his truth." That's in connection with the singing for joy and praises in the verses preceding So, when we tell the gospel and it is met with rejection, we will be sad and disappointed. But we can also know that this is part of God's plan to magnify his glory one way or another and then we can accept it. Of course, the telling of the gospel can also

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경우를 한 번 살펴보자.

have a positive outcome and we'll turn to that now with our last point:

3.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3. God's grace accepted.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묘사하고 있다. 거기서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구원을 받았다.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자신들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두 번째 교리 제7항)"이 있다.

In Paul's description of what's happened with the gospel among the Jews in Romans 10, we do find that some accepted the good news. Some believed that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Some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and were saved. When the gospel of grace is told, there are those who, in the words of Article 7, "truly believe and by the death of Christ are freed from their sins and saved from perdition (eternal punishment)."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공적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를 주목해야 한다. 누군가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일하심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죄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역시 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And to whom do we give the credit for that outcome? We have to turn our hearts and attention entirely to God! His work in people's lives is the reason why anybody believes the promise. His work is the reason why people repent, why they have a change of mind about their sin, about him, and about themselves. His work is the reason why people believe in Christ for the complete forgiveness of all their sins.

도르트 신조에서 “이 은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옵니다(둘째교리 제7항).”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달리 찬양받을 자는 없다. 복음의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겸손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도르트 신조의 둘째교리 제7항 끝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은혜를 빚지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뜻을 잘 헤아리자. 빚진바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일 수 없지 않은가!

That's why the Canons say that “this benefit comes only through God's grace, given to them from eternity in Christ.” There is no one else to praise. People ought not to be proud that the gospel promise has been believed. Rather, this is reason for humility, thankfulness and praise. It's entirely of grace. And just to make sure we understand that the Synod of Dort added those few words at the end of Article 6, “God owes this grace to no one.” If it was owed, it wouldn't be grace!

도르트 신조 다른 곳에서도 이 점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자꾸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비록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만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인색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고백적 기준이 있어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채찍질 하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은 믿음이든 삶 속의 모든 선행들이든 그 은덕을 오직 은혜의 하나님에게 돌려야 한다.

Now this isn't the first or last time that the Canons of Dort make this point, but it's important enough to repeat, also in our day. People, even when redeemed by Christ, are prone to be proud, thankless and slow to praise God. We can be thankful to God that our confessional standards, summarizing Scriptural truth, poke and prod us in the right direction! Anyone who believes the gospel of grace can only attribute his belief and every other good thing in his life to the God of grace.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 가운데 선교적 소명을 일깨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존 파이퍼(John Piper)의 말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구원교리에 관한 한 그는 칼뱅주의자이다. 그는 어떤 면에서 개혁주의자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선교에 대한 그의 훌륭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적극 추천할만한 책이다.『열방으로 기뻐하게 하라: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것이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배가 궁극적이고 선교는 궁극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이고 사람은 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가 다 지나가고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예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행위인 예배보다 그 이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은혜의 교리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존재자체로 인해

And what does that do to our motivation with respect to our missionary calling? To answer that question, let me give you a quote from John Piper. As far his doctrine of salvation goes, Piper is a Calvinist. In some ways, he's not Reformed, but we can still go a long ways with Piper as Reformed people. John Piper has an excellent book on missions that I can highly recommend: Let the Nations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He starts that book with these powerful words:

Missions is not the ultimate goal of the church. Worship is.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Worship is ultimate, not missions, because God is ultimate, not man. When this age is over, and the countless millions of the redeemed fall on their faces before the throne of God, missions will be no more. It is a temporary necessity. But worship abides forever.

Worship -- we can call it the magnification of God's glory -- is what it's all about. When we believe the doctrines

경배 받으시는 것을 목격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 그분은 바로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은혜의 교리들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복음이 전해질 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다. 둘 모두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신앙으로 반응하든 불신앙으로 반응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고무시키고 격려한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개혁주의자들에게 '얼어붙은 택자(擇者)'라는 별명이 붙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 개혁주의 신자들은 은혜의 교리들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of grace, we're eager to see God worshipped for being who he is: the one who gave us and all his chosen people all the good we never deserved. And we long to see the gospel message embraced by those who are called so that we can praise God more for his grace.

The doctrines of grace teach us that the gospel must be announced since it's part of God's plan. When that gospel is told, there are two responses and each one is part of the sovereign God's plan to reveal his glory and magnify his praises. Whether it's belief or unbelief, God will have himself exalted through us. That pushes us and inspires us to be faithful in carrying out the missionary task that Christ has given us today. For we know why we're here on this earth: it's to live for his praise and honour.

You see, the nickname "frozen chosen" is difficult to defend historically. Reformed believers have embraced the doctrines of grace and so been mo-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그렇지만 '얼어붙은 택자(擇者)'라는 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혹시 우리가 정말 '얼어붙은 택자(擇者)'와 같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교리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도르트 신조나 은혜의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령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잘 깨닫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강렬한 빛이 되도록 도전을 주고 있다. 은혜의 교리는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위한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이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한다.

tivated to mission. But the nickname does challenge us today. Are we "the frozen chosen"? And if we are, have we really understood the doctrines of grace? We can't blame the Canons of Dort or the doctrines of grace if we are lacklustre in our zeal for outreach. In fact, the problem is more likely that we haven't really understood them or if we have understood them, we've just been lazy in seeing how they ought to impact our own lives. Brothers and sisters, the truth of Scripture challenges us today to be a fierce and fiery light in the world. The doctrines of grace give us ample motivation to get out there and shine for Christ, sharing the gospel, praying for those who hear it, praising God for those who accept it, praising God that we accept it! All for his glory. AMEN.

이 글은 Wes Bredenhof 목사님이 2006년 Langley Canadian Reformed Church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선교지평은 설교자로부터 번역과 인쇄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